

미국, 이란산 석유 수입제제 강행

오바마 대통령, 글로벌 석유 수급 문제없어 ... 예외요구 많아 골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월30일(현지시간) 이란산 석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Presidential Determination> 발표를 통해 “세계 경제상황, 여러 나라의 석유 생산 확대, 전략비축유 확보량 등 여러 요인을 검토한 결과 이란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와 석유제품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산 석유 수입국의 우려와 관련해 “이란산 석유·석유제품 구입 축소에 따른 영향을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마크 커크(공화)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수권법은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 등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미국 자산을 동결해 환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정부의 조치는 이란의 수입 가운데 70%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의 <돈줄>을 죄는 방식으로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일부 국가는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이란제재 관련 한국·미국 양자협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15-20%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3월30일 정례브리핑에서 새 금융제재 적용 예외에 대해 “이미 많은 예외를 발표했으며 인디아 등 여러 나라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예외 결정이 나오면 발표하겠지만 아직 계획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원유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아주 신중한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산 석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는 2011년 12월31일 발효된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관련조치 가운데 하나로 석유부문에 대한 제재조치는 6월28일 개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02>